

띠리리링~ 침대 옆에 탁자위의 모닝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침대가 풀썩거리면서 일어나는 연우 핸드폰을 보면 밤 사이에 와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와 부재중 전화들이 있다. 확인하지 않고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부스스한 머리와 살짝 부은 연우의 얼굴. 냉장고에 붙어 있는 쪽지, “미안 바빠서 아침밥은 못 차렸어 시리얼 먹구 가!” 부엌 위에 찬장을 보니 시리얼로 가득차있다. 종류별로 있는 시리얼(20개는 되어보인다.) 그 앞에서 뭘 먹을까 고민하는 연우. 그냥 한 두 어개 섞어서 우유를 부어 먹는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연우, 양치를 하려고 치약을 짜려고 하는데 치약이 없다. 화장실 서랍에서 새 치약을 꺼내려고 하는데 서랍장에 붙어있는 메모. 치약은 다시 한 번 더 쥐어짜보기! 스프레이는 다시 한 번 더 흔들어보기! 샴푸통을 다시 한 번 더 거꾸로 놓아보기! 라고 적혀있다. 새 치약을 들었다가 다시 놓고. 온 힘을 다해 인상이 구겨지도록 쥐어 짜본다. 아주 쥐똥만큼 나온 치약. 그리고 다 쓴 치약을 휴지통에 버린다. 그렇게 양치를 하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연우. 현관문에 붙어있는 쪽지. “다 체크했어요? 밸브, 전기, 지갑, 핸드폰? 자 그럼 이제 웃으면서 하루 시작하면 되겠다. 오늘도 파이팅해요!”

신발장 옆에 있는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보는 연우 무표정에서 옅은 미소로, 옅은 미소에서 해맑은 미소로 바뀐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연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화면 멈춤)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아침과는 달리 조금 피곤해보이는 연우, 넥타이는 조금 풀어져 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연우. 불이 꺼져있다.

나 왔어~라는 얘기하는 연우

아무 대답이 없다. 멧쩍은 미소를 보이는 연우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조깅을 하러 나온 연우. 그렇게 한참을 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를 지나치려다 다시 들어가서 장을 본다

카트 위에 수북히 쌓인 시리얼(족히 10개를 되어 보인다). 그리고 치약 한웅덩이와 맥주 몇이 있다.

깡깡거리면서 문을 여는 연우, 여전히 불은 꺼져있다.

거실에 좌르르 쏟아지는 시리얼과 치약, 맥주

그리고 다시 서랍장과 찬장에 차곡차곡 쌓는다.

냉장고 문을 여니 가득한 맥주들 냉장고 안에 붙어있는 메시지

“맥주는 퇴근하고 하루에 한 캔만 하자!” 하루 한 캔 1년 365캔만 마시자!

미지근한 맥주는 넣고 시원한 맥주 두 캔을 꺼내는 연우

동시에 두 캔을 따는데 툭 툭! 툭 툭!

동시에 두 캔을 따서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카톡 메시지를 보낸다.

연우: 윤경아 오늘 하루도 끝이다. 아니 겨우 버텼어

내레이션 누군가 죽고 나서야 남겨진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진작 누군가 살아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다 그 사람이 흔적만을 보고 그 사람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서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건지....

한 캔은 그대로 한 캔만 마시는 연우. 그렇게 스르르 쇼파 위에서 잠이 든다.

그 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 다시 잠에서 깬 연우
문을 여는데 왠 여자아이가 있다.(여대생이나 고3처럼 보이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사와서 떡 드리려구요. 저희 바로 요 옆에 (복도식 아파트) 000호
로 이사왔어요. 잘부탁드립니다!

연우 피곤해서 대충 응응하면서 떡을 받아들고 문을 닫으려는데

아저씨! 반갑다 아니면 떡 잘먹을게 뭐 이런말은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초면에 무안하게!

연우 잠깐 듯 아...미안해..떡 잘먹을게..그리고 반가워

여자 조금 내키진 않지만 사과를 받고 그럼 나중에 백요라고 하면서 자기집으로 간다
연우 떡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다시 쇼파 위에 잠든다.